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이상과 실행과 건축

(토요일 — 오전 1부 집회)

메시지 7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건축 (1)

하나님의 건축물에 대한 이상과 우리의 영성에 대한 시험

성경: 마 16:18, 창 28:10-19, 엡 2:21-22, 히 13:13-14, 딤후 3:15-16

- I. 교회의 건축은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과 계획이 지향하는 표적(標的)이다. 교회의 건축은 성경에 있는 모든 이상과 계시에 따른 하나님의 목적의 중심점, 곧 궁극적인 표적이다 — 마 16:18, 계 21:10-11.
- A. 성경에 있는 이상들은 하나님의 건축물과 관계된다 — 창 28:10-19, 계 21:2.
- B. 성경에는 첫 번째 언급의 원칙이 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사항이 첫 번째로 언급될 때 그것의 원칙이 세워진다는 것이다.
1. 성경에 있는 첫 번째 이상은 하나님의 건축물에 대한 이상이다 — 창 28:10-19.
 2. 따라서 첫 번째 언급의 원칙에 따르면, 성경에 있는 이상들은 하나님의 건축물과 관계된다 — 겔 1:1, 8:3, 43:1-7.
- C. 성경에 있는 첫 번째 이상은 어떤 꿈이며, 이 꿈의 중심점은 삼일 하나님과 연합된 사람들로 건축된 베엘, 곧 하나님의 집이다 — 창 28:10-19.
- D. 성경에 있는 마지막 이상 — 확대된 이상, 완전한 이상 — 은 새 예루살렘이다 — 계 21:2-22:5.
1. 베엘에서의 이상은 이상의 씨이며, 새 예루살렘에 대한 이상은 그 이상의 수확이다.
 2. 성경에서 베엘에 대한 이상과 새 예루살렘에 대한 이상 사이에는 수많은 이상들이 있다. 이 이상들은 그 이상의 씨의 성장과 확대와 회복이며, 심지어 확대의 확대이다.
 - a. 모세는 성막의 건축에 대한 이상을 보았다. 그는 하나님의 건축물을 위한 하늘에 속한 모형의 참된 이상을 보았다. 이 이상은 그 씨의 성장이었다 — 출 25-31장.
 - b. 다윗은 그다음 주된 이상, 곧 성막의 확대인 성전에 대한 이상을 보았다 — 삼하 7:1-16.
 - c. 에스겔서 40장부터 48장까지에 따르면, 에스겔이 본 성전은 다윗이 본 성전의 확대였다.
 - d. 스가랴가 본 이상은 성전의 회복과 관계되었고, 다니엘이 본 이상은 마지막 때의 성전과 관계되었다 — 슥 4:9, 단 9:27.
 - e. 서신서들은 사도들, 주로 베드로와 바울이 그들 당시에 보았던 교회의 이상을 우리에게 보여 준다 — 뱀전 2:5, 엡 2:21-22, 4:16.
 - f. 사도 요한은 최종적인 이상, 곧 완결된 이상을 보았다 — 계 21:2, 10-11.
- E. 하나님의 건축물을 보기 위해서 우리는 이상이 필요하다. 우리가 주님께 열려 있고 주님을 추구한다면, 결국 이상이 우리에게 열릴 것이고, 우리는 우리의 영 안에서 그 이상을 볼 것이며, 하나님의 건축물은 우리에게 이상이 될 것이다 — 엡 1:17-18, 2:21-22.

II.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건축에 대한 이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남아 있는 이들이 진영 밖으로 나와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 히 13:13-14.

- A. 히브리서 13장 13절은 믿는 이들이 진영 밖에서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말해 준다.
1. 히브리서와 성경의 예표 모두에서 진영은 인간적이고 땅에 속한 종교 조직을 상징한다.
 2. 진영 밖으로 나오는 것은 인간의 종교 조직 밖으로 나오는 것이다.
 3. 진영은 인간의 조직을 상징하는 반면, 성(城)은 땅에 속한 영역을 상징한다. 모든 종교는 하나님의 백성을 신약 경륜에서 멀어지게 하는, 인간의 조직이며 동시에 땅에 속한 영역이다 — 히 13:14, 딤후전 1:3-4, 엡 3:9.
 4. 유대교이든 천주교이든 개신교이든, 주님을 거절한 종교는 무엇이든지 주님께서 버리신 진영, 곧 인간의 조직이다.
 5. 원칙적으로, 종교 체계인 기독교는 한 무리의 종교적인 사람들로 구성된다. 이들은 명목상으로 주님께 속하고 입으로는 주님을 공경하지만, 마음으로는 주님 이외의 다른 것을 열망한다 — 마 15:8-9, 딤후 3:5.
- B. 오늘날 하나님은 남아 있는 이들, 곧 적은 무리의 이기는 이들이 필요하시다. 이들은 교회 전체가 잃어버린 입지를 취하고, 하나님의 원래의 목적에 대한 이상을 보면서, 진영 밖으로 나와 그리스도께 나아가간다 — 행 26:19, 빌 3:4-8, 히 13:13, 계 2:7.
1.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어떻게 그들 자신을 몸의 모든 지체들과 동일시할 수 있는지를 고려하고 있다.
 2. 이렇게 하려고 시도하는 사람들은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것은 현시대의 본성이 아니기 때문이다.
 - a. 오늘날의 시대는 몇몇 이기는 이들이 거절당하신 주님, 곧 진영 밖에 계신 분의 음성 에 귀를 기울이는 때이다 — 계 2:7, 히 13:13.
 - b. 여전히 진영 안에 있는 이들과 ‘동일시’하려고 하는 대신에, 우리는 진영 밖으로 나와서 주님께 나아가 주님의 목적을 위해 그분을 따라야 한다 — 딤후 1:9, 엡 3:11, 롬 8:28.
 3. 우리는 종교적인 관념과 인간적인 사상에 동조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건축에 관한 하늘에 속한 이상을 따라야 하며, 진영 밖으로 나와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한다 — 잠 29:18, 엡 4:16.

III. 하나님의 건축물은 우리의 영성에 대한 시험이다 — 고전 14:4, 12, 26.

- A. 건축물은 모든 종류의 영성에 대한 시험이다 — 엡 2:21-22, 고전 14:26.
1. 우리 자신이 우리의 영성을 시험하는 기준이 아니다. 우리의 영성은 반드시 하나님의 건축물인 그리스도의 몸에 의해 시험받아야 한다.
 2. 개인주의적인 영성은 참된 영성이 아니다.
 - a. 만약 어떤 사람이 자신이 영적이라고 생각하면서도 독립적이고 개인주의적이고 몸을 떠나 고립되어 있다면, 그의 영성은 속임수이다.
 - b. 참되고 진정한 영성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건축을 위한다 — 엡 3:16-17상, 4:12, 15-16.
 3. 하나님께서 관심하시는 것에 따르면,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성이 아니라 건축물이다. 하나님의 건축물이 우리의 기준과 시험이다.

B. 에스겔서에 따르면,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의 요구들은 집을 기준으로 한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집의 측정에 따라 측정되고 점검받아야 한다 — 겔 43:10.

1. 우리의 생활과 행실과 봉사는 다만 도덕적인 규정이나 영적인 원칙에 따라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 곧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따라서 점검되어야 한다 — 딤후 3:15-16.
2. 우리의 주된 관심은 우리의 행위를 개선하거나 영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에 적합하게 되는 것이어야 한다 — 고전 14:12.
3. 우리의 존재와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건축물에 어울리지 않는다면, 결국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다 — 고전 3:10-15.
4. 주님은 하나님의 집이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매우 관심하시기 때문에, 우리 또한 교회를 관심하고 자신을 교회에 맞추어 가야 한다 — 딤후 3:15-16.
5. 우리가 이것을 본다면,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이나 내적인 생명에 관한 가르침만을 주의 하지 않을 것이다. 대신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건축을 절대적으로 주의할 것이다 — 엡 1:22-23, 2:21-22, 4:12, 16.

사역의 말씀에서 발췌

하나님의 건축물에 대한 이상

성경의 모든 이상은 하나님의 건축물과 관계있음

교회의 건축은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과 계획의 표적이다. 교회의 건축은 성경에 있는 모든 이상과 계시에 따른 하나님의 목적의 중심점 곧 궁극적인 표적이다. 성경에 언급된 첫 번째 이상은 창세기 28장 10절부터 19절까지에서 볼 수 있는 야곱의 꿈이다. 그 이전에 영광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지만(행 7:2),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이상은 아니었다. 성경에서 첫 번째 이상은 야곱의 꿈이었다. 이 이상의 중심 항목은 베엘, 곧 하나님의 집이었다. 이 베엘은 두 종류의 재료, 곧 돌과 그 위에 부어진 기름으로 건축되었다. 돌은 사람을 상징하고 기름은 그 영으로서 우리에게 오시는 하나님 자신을 상징한다. 야곱은 돌 위에 기름을 부은 후 그곳의 이름을 베엘이라고 불렀다. 기름이 부어진 돌은 하나님의 집이 되었다. 이것은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이다.

우리에게 오시는 그 영은 삼일 하나님의 셋째 위격이시다. 아버지는 우리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셨고, 아들은 한때 우리 가운데 거하셨지만 우리 안에 계시지는 않았다. 하나님 자신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하나 되시고 하나님의 집인 베엘을 산출하시는 것은 '기름'이신 그 영의 위격 안에서, 또 그 영의 위격에 의해서이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첫 번째 이상은 꿈인데, 이 꿈의 중심 내용은 삼일 하나님과 연합된 사람들로 건축되는 하나님의 집이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에 속한 이상 또는 영적인 이상에 대해 자주 말하지만, 성경의 중심 이상들에 대해서는 분명하지 않은 것 같다. 성경의 이상들은 항상 하나님의 건축물과 관련된다. 성경에는 첫 번째 언급의 원칙이 있다. 다시 말하면, 어떤 문제가 첫 번째로 언급될 때 그것의 원칙이 세워진다는 것이다. 성경에 있는 첫 번째 이상은 하나님의 건축물에 대한 이상이다. 따라서 성경에 있는 이상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건축물과 관계된다.

성경의 마지막 이상은 성경의 마지막 두 장에 있는 새 예루살렘이다(계 21-22장). 이것은 확대된 이상, 완전한 이상이다. 베엘에서의 이상은 이상의 씨이며, 새 예루살렘에 대한 이상은 이상의 수확이

다. 성경의 처음과 마지막의 이 두 이상 사이에 많은 이상이 있다. 모세는 장막의 건축의 이상을 보았다(출 25-31장). 그것은 하나님의 건축물을 위한 하늘에 속한 모형의 참된 이상이었다. 뱌엘의 이상이 씨였다면, 시내 산에서 모세의 이상은 이 씨의 성장이었다. 모세 이후 주요한 이상은 다윗의 이상이었다. 즉, 성막의 확대인 성전에 대한 이상이었다(삼하 7:1-16). 이것에 뒤이어 에스겔의 이상이 있다. 에스겔서 40장부터 48장까지에 따르면 에스겔이 본 성전은 다윗이 본 성전이 더 확대된 것이었다. 스가랴의 이상은 성전의 회복과 관련된다. 다니엘의 이상은 마지막 때의 성전과 관련된다. 이후 위대한 이상은 주로 베드로와 바울에 의해 대표되는 사도들의 이상이었다. 서신서들은 사도들이 자신들이 살았던 시대에 보았던 교회에 관한 이상을 우리에게 보여 준다. 마지막 이상은 요한이 본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이 종종 이상들에 대해 말하는 것을 들을 때, 나는 놀라움을 금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이 이 모든 이상이 하나님의 건축물을 위한 것임을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어떤 형제들은 신학교와 성경 기관들에서 성경을 연구해 왔지만, 하나님의 건축물의 이상에 대해서는 결코 들어 보지 못했을 수 있다. 만약 우리가 위에서 말한 이상들을 성경에서 제해 버린다면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이 이상들에서 우리는 씨와 성장과 확대와 회복과 심지어 확대의 확대를 갖는다. 신약의 이상들에는 참된 항목 곧 교회가 있고, 요한계시록에는 하나님의 건축물의 궁극적인 나타남인 새 예루살렘이 있다. 이 모든 이상은 한 가지 항목 곧 하나님의 건축물과 관련된다.

하나님의 건축물에 대한 이상을 볼 필요가 있음

이 시대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는 단지 가르침이나 교리가 아닌 이상을 가질 필요가 있다. 1939년부터 워치만 니 형제님은 삼 년에 걸쳐 한 가지를 강조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건축물인 몸을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었다. 형제님은 우리에게 몸의 이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몸에 관해 어떤 것을 듣는 것과 몸을 보는 것은 별개의 일이다. 우리는 이것을 로스앤젤레스를 실지로 보기 전에 그곳에 대해 듣는 것에 비유해 볼 수 있다. 나는 오래 전 어렸을 때 로스앤젤레스에 대해 들었지만, 그곳에 가 본 것은 1958년에 이르러서였다. 이제 나는 로스앤젤레스에 대해 분명한 조망을 갖고 있는데, 특별히 비행기를 타고 여행할 때 그렇다. 우리는 하나님의 건축물에 대해 단지 듣고 배우고 아는 것만이 아니라 보기 위하여 이상이 필요하다. 우리가 어떻게 이 이상을 볼 수 있는지 정확히 말할 수는 없다. 그러나 주님을 추구하고 함께 모여 하나님의 건축물에 대해 반복해서 교통한다면 결국 우리는 무언가를 볼 것이다. 그때가 되기 전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건축물에 대해 지식적으로 알고 있었을 수 있다. 그러나 결국 이 이상은 우리에게 열릴 것이고, 우리는 우리의 영 안에서 그것을 볼 것이다. 만약 우리가 주님께 열려 있고 그분을 추구한다면, 조만간 하나님의 건축물이 우리에게 이상이 될 것이다.

우주 가운데서 하나님은 건축물을 갈망하신다. 이것이 그분의 목표요 궁극적인 목적이다. 하나님은 이것을 얻으실 것이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과 그분의 갈망을 추구한다면, 이 문제에 있어서 그분과 함께해야 한다.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실질적인 방식으로 함께 건축되는 것을 보기 전까지는 만족할 수 없다. 다윗은 하나님의 거처에 대하여 참된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불리었다. 그는 그가 살던 시대에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닌 땅에 있는 하나님의 거처를 건축하는 것 외에는 어떤 것에도 마음이 사로잡히지 않았다. 오늘날 우리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거처에 대한 참된 관심을 가져야 한다.

많은 그리스도인 형제자매가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해 애를 많이 쓴다. 나는 이것을 들을 때마다 매우 기쁘다. 나도 복음의 일이 전진하도록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주

남은 복음의 일을 넘어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신다. 즉, 복음을 전파하여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구원받은 이들을 함께 건축하는 일을 하고 계신다. 우리는 잃어버린 이들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구원받은 이들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건축물에 대해서도 참된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것이 우리가 이곳에 있는 목적이다. 우리는 어떤 종류의 복음의 일도 낮게 보지 않는다. 우리는 복음의 일을 돕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무언가 더 전진된 것을 볼 필요가 있다. 즉, 하나님의 건축물과 그분의 목적에 대해 이상을 볼 필요가 있다. 우리는 단지 복음이나 영성만을 위해 이곳에 있지 않다.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과 목표인 교회 건축을 위해서이다.

남아 있는 이들이 진영 밖으로 나가 그리스도께로 갈 필요가 있음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온 교회가 잃어버린 입장을 취하는 남아 있는 이들, 곧 소수의 이기는 이들이 필요하시다. 바로 이 때문에 우리는 이상을 볼 필요가 있고, 단순히 우리의 타고난 종교적인 관념에 따라 상황을 고려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에 따른 무언가를 볼 필요가 있다. 우리는 오늘날의 상황을 로스앤젤레스의 스모그에 비유해 볼 수 있다. 연중 많은 날 우리는 스모그 때문에 산들을 보기가 어렵다. 스모그가 낀 상태에서는 모든 사람의 시야가 가려져 있다. 우리는 초월하여 스모그가 낀 대기 위로 올라갈 필요가 있다. 그럴 때 우리는 이상을 볼 것이다.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어떻게 그들 자신을 몸의 모든 지체들과 동일시할 수 있는지를 고려하고 있다. 이렇게 하려고 시도하는 사람들은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이것은 현시대의 본성이 아니다. 오늘날의 시대는 몇몇 이기는 이들이 거절당하신 주님, 곧 진영 밖에 계신 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때이다(히 13:13). 여전히 진영에 있는 이들과 '동일시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 그 대신 진영 밖으로 나가 주님께로 가서 그분을 따르고 그분의 목적을 성취하라. 우리는 주님보다 더 포용적일 수는 없을 것이다. 주님 자신께서 진영 밖으로 나가셨다. 우리는 종교적인 관념과 인간적인 사상에 동조하지 말고, 하늘에 속한 이상을 따라야 한다. 진영 밖으로 나가 그분께로 가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공활을 베푸시기를 바란다. 우리는 이상이 필요하다. 주님은 오늘날 미국에서의 복음 사역에 대해 내가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증언하실 수 있다. 수많은 사람이 주님께 이끌렸다. 그러나 나는 수많은 잃어버린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보는 것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한다. 나는 심지어 소수일지라도 그들 가운데 일부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께로 가며 살아 있는 증거로 함께 건축되는 것을 보고 싶다. 이들은 요한계시록 21장 2절과 9절에 언급된 영원 안에 있는 어린양의 아내일 뿐 아니라, 19장 7절과 8절에 기록된 그리스도의 신부인 이기는 이들일 것이다.

우리는 이상을 볼 필요가 있고 일반적인 관념만을 가져서는 안 된다.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유죄 판결하고 비난하는지에 관계없이, 우리는 그들의 말에 주의를 기울여서는 안 된다. 주 예수님은 이 땅에 계셨을 때 항상 종교적인 사람들, 손에 성경을 들고 있는 이들에게서 비방을 받으셨다. 그분은 또한 그 사람들이 성경을 이해한 것에 따라 그들에 의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우리는 모든 비방에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 우리에게서는 하나님의 건축물에 대한 이상이 필요하다. 이상이 없다면 여기서 말한 모든 것이 공허하다. 일단 우리에게 이상이 있다면 모든 것이 달라진다. 온 우주가 바뀐다. 나는 이것들을 말해 낼 능력이 부족하다. 그러나 나는 내가 여기서 말한 것이 나 자신의 말이 아니라 계시하시는 영께서 하나님의 건축물의 이상을 열어 보여 주시는 것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고, 주님께서 그렇게 이루실 것을 신뢰한다. 성령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건축물의 이상을 볼 수 있도록 이것들을 여러분에게 열어 보이실 것이다. 성경에는 다른 이상이 없다. 성경의 모든 이상은 하나님의 목

적이 지향하는 목표인 하나님의 건축물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건축물은 우리의 영성에 대한 시험임

참된 영성은 하나님의 건축물을 위함

하나님의 건축물의 이상을 보는 것에 더해 우리는 또한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건축물이 무엇인지를 볼 필요가 있다. 건축은 각종 영성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금석이다. 우리 자신은 우리의 영성이 얼마나 참된지 점검해 볼 수 있는 기준이 되지 못한다. 오히려 우리는 자신의 영성을 점검해 보기 위해 건축이라는 시금석 앞에 자신을 놓아 보아야 한다. 여러분은 매우 영적일 수 있다. 그러나 여러분은 매우 개인주의적인 사람일 수도 있다. 개인주의적인 영성은 참된 것이 아니다. 참되고 실질적인 영성은 건축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만약 어떤 사람이 자신이 영적이라고 생각하면서도 독립적이고 개인주의적이며 몸에서 분리되어 있다면 그의 영성은 거짓된 것이다.

어떤 이는 매우 겸손할지 모른다. 그러나 이 겸손이 참되고 영적인 것인지, 아니면 거짓되고 타고난 그대로의 것인지는 오직 건축에 의해 점검해 볼 수 있다. 겸손한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들은 매우 독립적이다. 그들은 어떤 이와도 연결되지 못한다. 그들은 개인주의적으로 겸손하고, 분리된 방식으로 겸손하다. 우리 가운데 이런 종류의 점잖고 착하며 겸손한 형제들이 있을 수 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귀하게 여길 수 있다. 그러나 만약 우리에게 ‘산의 정상에서 온’ 이상이 있다면, 우리는 밑을 내려다보면서 실질적인 상황을 알 수 있다. 이런 종류의 타고난 겸손을 허물어 내자. 이것은 너무 개인주의적이고 분리되어 있는 것이다. 이것은 심지어 손상을 준다. 이런 종류의 겸손에는 다른 이와 연결이 결여되어 있다. 진정하고 참된 영성은 건축을 위한다. 만약 우리가 건축할 수 있다면 교만하거나 겸손한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우리는 자신의 겸손에 대해 다른 이들의 칭찬을 받으면서 그 겸손에 의해 건축을 손상시키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관심하시는 것에 따라 볼 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성이 아니다. 엄밀히 말해서 하나님은 영성이 아닌 건축물에 관심이 있으시다. 우리가 자신을 얼마나 선하고 겸손하며 영적인 사람으로 간주하는지에 상관없이 점검을 받자. 우리는 얼마만큼이나 건축물 안에 있는가? 우리는 얼마만큼이나 건축되었고 다른 이들과 연결되어 있는가? 하나님의 목표는 한 무리의 좋은 그리스도인을 얻는 것이 아니다. 그분의 목표는 우리를 함께 건축하시는 것이다. 그분은 박물관에 전시할 목적으로 보석들을 원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귀한 재료들로 건축된 집을 원하신다. 여러분은 보배로울 수 있다. 그러나 여러분은 아직 다른 이들과 건축되지 않았다. 만약 그런 상황이라면 여러분은 단지 전시용으로만 유용할 뿐이다. 여러분은 건축물에 적합하지 않다. 하나님은 개인적인 전람이 아닌 건축을 위해 귀한 재료들을 만드셨다.

어떤 지방에서 몇몇 성도가 한 자매를 추천하면서 “그녀는 매우 영적인 자매입니다. 그녀는 조용하고 모든 이에게 항상 친절합니다.”라고 말했다. 실지로 이 자매는 모든 이에게 친절했다. 그러나 그녀는 하나님의 건축물에는 적합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 지방에 여러 해 동안 있었지만, 다른 이들과 연결되지 않았다. 그녀는 매우 영적인 자매라고 여겨졌지만, 연결되어 있지 않았다. 그녀는 분리된, 개인적인 영성으로는 훌륭했지만, 그것은 건축물에는 적합하지 않았다. 우리는 이런 종류의 영성을 귀히 여겨서는 안 된다. 우리의 영성에 대한 시금석은 건축이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이상, 실행, 건축, 207-217쪽)*